

『三國遺事』 「古朝鮮條」 기록에서 ‘古’의 의미와 그 시간적 범위

李鏡淑·文致雄*

「차 례」

1. 緒論
2. ‘上古’와 ‘昔’
3. ‘古’에 대한 시기구분 및 古朝鮮의 ‘古’ 의미 해석
4. 結論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의 시간사적 의미인 昔과 古代에 대한 논의이며, 특히 『三國遺事』 「古朝鮮條」에서 古朝鮮이라 칭한 그 고의 의미와 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고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문헌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고의 시기와 그 구체적인 시대를 세분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三國遺事』 「古朝鮮條」에서 해당 시기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 고의 시대와 비교하고 구분, 정리하였다.

『古朝鮮條』에서 『古記』를 인용하여 기록한 “昔有 桓國”에서 桓國이 있었던 昔의 시대는 上古에 해당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당시의 관직명인 “風伯, 雨師, 雲師”에 대해 『山海經』, 『史記』 등을 포함한 고대를 기록한 문헌 분석 결과 그 시기가 上古 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문헌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고에 대한 시간적 구분은 上古, 中古, 近古(後古, 下古)의 세 구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上古와 中古 사이에 治水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건과 이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대를 고의 중심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本古로 하였다. 『玉篇』에 보면, 古는 “久也, 始也”라 하여 오래전 처음 시작하던 때라 한 내용이 보이는데, 本古를 본격적인 고의 시작으로 보고, 이보다 앞선 시대의 上古를 昔으로 하였다. 이렇게, 昔이라고도 하는 上古와 中古 사이의 本古 시대를 따로 분류하여 시대 구분의 한 기간으로 삼아, 단군조선을 건국한 시기를 本古로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伏羲 神農, 蚩尤’로 대표되는 시기는 昔인 上古 시대로, 堯舜 時代를 비롯한 虞夏, 殷과 고조선 건국 시기는 上古와 구분하여 本古의 시기로 분리하였다. 『三國遺事』의 “與高同時”가 의미하는

* 公州大 講師 jing20000219@hanmail.net / 弘益財團 研究院長 cumoon@hanmail.net

시대는 바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堯舜시대와 같은 고의 시대인 本古라고 구분할 수 있다.

中古는 보통 周 文王시대로,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周虎王即位己卯(周나라 虎王이 즉위한 己卯년)”에 보이는 시기를 말한다. 近古에 해당하는 기록은, “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단군이 藏唐京으로 옮겨 살다가 후에 살 곳을 아사달의 산에 만든 때는 단군이 命을 할 때부터 1908년이 된다)”의 내용 중에서 “壽一千九百八歲”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나라를 건립하고 1908년이 지난 시점은 단군 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으로부터 1908년이 지난 시기인 B.C. 425년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C. 425년은 공자가 사망한 B.C. 475년 보다 50년 後의 시대로, 이 의미는 이때까지도 왕검 조선이 존속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古朝鮮, 上古, 本古, 中古, 下古

1. 緒論

『三國遺事』 「古朝鮮條」에는 단군왕검이 건국한 朝鮮에 대해 고조선이라 부르고 있다. 이 고조선에 대해 학계에서는 왕검조선을 왜 고조선이라 부르는지에 대해 정확히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 古代의 시기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구분도 불분명하며, 막연한 과거 또는 대략적인 먼 옛날에 대해 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문자학적 古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 起因한다. 문헌의 많은 기록에서 발견되는 古의 의미는 막연한 과거나 옛날이 아니라 특정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시대의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자의 역사와 발전 단계, 역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그 古가 의미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古의 의미를 특정할 수 있는 어느 시기의 의미가 아니라 옛날, 또는 막연한 과거로 해석한다면 내용의 이해와 구체성이 떨어지며, 비교와 구분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대 구분을 위한 시간사로서의 한자로는 古를 포함하여 昔, 中, 近 등과 같은 글자들이 있으며, 연도를 나타내는 의미의 글자로는 載, 歲, 年, 祀 등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미와 그 쓰임에 대한 명확한 의미 파악과 그 적용은 문헌연구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역사의 바른 이해와 정립, 사건 또는 인물의 활동 시대와 순서, 문명 또는 문화의 발달

과정 및 기원, 형성, 전파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자학적인 시간사의 이해와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 구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후대에 만들어진 개념의 적용으로 사건들이 잘못 기록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문헌에서 정리된 고에 대한 시간적 의미를 바탕으로 주요 문헌에 등장하는 시대 구분을 비교, 정리하여 『三國遺事』 「古朝鮮 條」의 고에 대한 의미와 그 기간을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고에 대한 시간적 의미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古와 昔의 時代 解釋과 區分」, 「古의 時代區分考察 —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의미 해석」, 「三經에서의 古의 時期 解釋」¹⁾ 등이 있다. 또한 고에 대하여 특정 시기를 설명하거나, 특정시기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 볼 수 있는 대표 문헌으로는 『說文解字』를 위주로 한 문자학 관련 문헌과 康熙字典, 三經인 『書經』, 『詩經』, 『周易』과 『孟子』 등을 포함한 고대를 기록한 자료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의 내용 중에서 고의 시기로 표현되는 내용에 대해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특정 시대, 시간적 순서, 시대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三國遺事』 「古朝鮮 條」의 고 시대와 관련지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三國遺事』 고조선에서 단군왕검이 건국한 조선에 대해 고려 때에 왜 古朝鮮이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 그 시기의 시간적 범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군조선의 존속 기간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자학 관련 자료와 고대 문헌을 통한 고에 대한 의미 분석의 시간적 범위 설정과 구체적 특정 역사 해석에 대한 근거 제공은 한자 이해의 중요성 부각과 현실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李鏡淑, 文致雄(2019), 115~134면, 참조.

2. 上古와 昔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廣義의 古에 대한 上古, 中古, 近古(下古, 後古)는 세부 시기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기를 몇 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러한 구분을 보다 단순화하면 上古와 古代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은 古가 특정하고 있는 시기와 그 기준 시점이다. 古의 기준 시점이 정해져야 그 이전을 上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昔의 의미도 특정되어지는 어느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문헌의 문맥에 따라 ‘어제’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며칠 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으며, 古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시간 개념의 ‘오래전’이라는 의미, 그리고 ‘아주 까마득한 오랜 옛날’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孟子』 『公孫丑下』에 “昔者有王命, 有采薪之憂, 不能造朝 (어제는 왕명이 있었으나, 땀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조회에 나갈 수 없었다)”가 있는데, 여기서 ‘昔’은 바로 어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離婁上』의 “子來幾日矣” 曰, “昔昔” 曰, “昔者則我出此言也, 不亦宜乎”(“그대가 온 것이 몇 날이나 되었는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²⁾에서의 “昔”은 ‘며칠 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지난날을 의미한다. 또한 『滕文公下』에 나타나는 “昔者趙簡子使王良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예전에 조간자가 왕량을 시켜서 총애하는 신하인 해를 위하여 그의 수레를 몰아주게 하였는데, 날이 저물도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했다.)에서 “昔者”는 전국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과거의 시대, 즉 춘추시대를 가리킨다.³⁾

『莊子·齊物論』의 “昔者十日並出, 萬物皆照(昔에 태양이 열 개가 같이 나와서 세상을 함께 비추다)”의 ‘昔’과 『莊子·天下』 “昔者禹之湮洪水, 決江河而通四夷九

2) 본고에서 주로 참고한 문헌은 인터넷 ‘<https://ctext.org/mengzi/>’이나, 많은 판본에서 ‘昔者’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昔者’로 하겠다.

3) 이 내용은 孟子와 그의 제자 陳代의 대화로, 孟子는 전국시대 사람이며, 이 대화에서 인용한 인물인 趙簡子는 春秋時代 말기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昔’은 戰國時代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라는 말이다.

州也,名山三百,支川三千,小者無數”(옛날, 우임금 시대 홍수가 다 침몰시켰을 때, 강하를 터서 사방 구주로 통하게 한 것이, 명산은 삼백이고 지류천은 삼천이며, 작은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에서 뽑은 오래전의 과거로 夏가 만들어지기 전인 대홍수시기를 말하며, 특히 “昔者禹之湮洪水”에서의 昔시기가 홍수가 나던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렇듯 昔이 가지는 시간적 의미로서의 옛날의 의미는 특정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昔’자를 사용하는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맥과 문헌의 내용에 근거하여야 비로소 그 시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헌에 따라, 古에 대한 표현을 아주 먼 과거의 시대를 지칭하는 上古라고 했을 때, 昔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上古와 昔에 대한 시기의 정의는 아래의 문헌 등의 내용을 통하여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① 『韓非子·五蠹』：“上古之世，人民少而禽獸眾。人民不勝禽獸蟲蛇，有聖人作，構木為巢以避群害，而民悅之，使王天下，號曰有巢氏(上古시대는 사람들이 적었고, 동물들은 많았다. 사람들이 들짐승, 날짐승, 뱀, 벌레 등을 이길 수 없었다. 성인이 나와 나무를 엮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위험을 피하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 有巢氏라고 하였다)”

② 『周易』：“上古結繩而治，後世聖人易之以書契”(上古에는 結繩으로 다스리고, 後世의 聖人は 이것을 바꾸어 書契로 하였다)”

③ 『許慎·說文解字序』：“及神農氏，結繩爲治，而統其事(神農氏에 이르러,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들을 통일하였다)” 段玉裁·『說文解字注』：“謂自庖犧以前，及庖犧及神農，皆結爲治，而統其事(庖犧이전에서부터, 庖犧와 神農에까지, 모두 結繩으로 다스리어 일을 통일시켰다)”

④ 『莊子·胠篋』：“昔者 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尊盧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當是時也，民結繩而用之(昔에 容成氏, 大庭氏, 伯皇氏, 中央氏, 栗陸氏, 驪畜氏, 軒轅氏, 赫胥氏, 尊盧氏, 祝融氏, 伏羲氏, 神農氏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백성들이 새끼로 매듭을 지어 기호로 사용하였다)”⁴⁾

4) 문헌의 내용은 대부분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http://ctext.org/guanzi/shu-yan/zh>: (經典)(검색일:2021.06), <http://hanji.sinica.edu.tw/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검색일:2021.06)

예문 ①의 『韓非子·五蠹』에서는 上古에 대하여 문명이 활발히 전개되기 이전의 시대라고 묘사하고 다만, 나무를 엮어서 보금자리를 만든 사람을 성인(聖人)으로 칭하고 그를 有巢氏라고 하였다. 이를 ②의 『周易』 과 연결하여 고찰해 볼 때, 당시 上古시대는 문자가 아직 발명되기 전으로 結繩으로 다스리던 것을 후세의 성인이 서계를 만들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上古시대의 생활상과 기호에 의한 의미 표현에 대한 설명이며, 이와 관련된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성인(聖人)으로 평가하고 있다.

上古시대의 생활상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자연에서 삶을 이어갔으며, 짐승의 해를 피하기 위하여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생활하였다. 또한 초보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結繩을 통하여 상호 간에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이러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 행위는 추후,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보다 진보한 형태로 보이는 書契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문 ③의 『訃慎·說文解字序』 와 이에 대한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에 의하면 확실히 伏羲, 神農 시대는 모두 結繩을 통치 방법으로 사용하던 시기로, 아직 문자가 사용되지 못하였던 上古시대(究明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예문 ④의 『莊子·胠篋』 에서 찾아볼 수 있는 昔시대를 보면, 伏羲, 神農 이외에도 다른 많은 氏族, 父族 사회에서 結繩을 사용하였고, 이는 바로 상고시대를 묘사한 것으로 여기서 昔은 上古 시대를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아주 오래전 까마득히 먼 과거 시대, 문자가 아직 사용되기 전, 결승(結繩)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上古, 혹은 昔이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上古 시대에 대하여 특정해 보자면, 씨족 또는 부족 중심적인 생활, 열악한 자연 환경, 짐승들에 의한 많은 피해, 문자 이전의 생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上古에 해당하는 昔을 『三國遺事』 「古朝鮮條」 에 「古記」 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⑤ “古記云昔有桓國(謂帝釋也)庶子⁵⁾ (古記에서 말하기를 상고 때에 桓國(帝釋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의 서자가 있었다고 한다)”

5) 현재 전해지는 『三國遺事』 판본에는 “석유환국(昔有桓國)”으로 기록된 것과 “석유환인(昔有桓因)”으로 된 판본 등이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의 ⑤에서 “昔에 환국의 서자가 있었다”라고 하여 단군조선 이전인上古 때를 기록하면서 昔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는 『古朝鮮 條』에서 魏書를 인용하여 기록한 단군조선을 건국한 시점인 단군왕검과 堯의 시대보다 앞선上古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上古 때의 주요 관직들을 위의 ⑤ 문장 뒤로 이어지는 환웅과 관련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⑥ “將 風伯 雨師 雲師 而主教 主命 主病 主刑 主善惡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을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고)”

여기에서 보면 風伯 雨師 雲師와 같은 관직이 나타나는데, 주요 문헌을 통해 이러한 관직들이 사용되었던 시기와 관련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⑦ 『山海經·大荒北經』: “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 應龍蓄水 蚩尤請風伯雨師(치우가 병력을 동원하여 황제를 정벌할 때에 황제는 이에 맞서 응룡에게 명을 내려 기주의 외곽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응룡이 물을 이용하려 하니 치우는 풍백과 우사를 불러 들었다)”

위의 ⑦ 『山海經』 예문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물은 蚩尤와 黃帝이다. 여기서 黃帝는 五方중 하나인 土 지역의 책임자란 의미로 사용된 의미이지 제왕적인 위치인 皇帝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싸움을 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시대의 대치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등장하는 관직으로 風伯, 雨師, 應龍이 있다. 이들 중 『古朝鮮 條』 예문 ⑥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관직을 가진 인물들인 風伯, 雨師가 등장한다. 두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雲師에 대해서는 『史記·五帝本紀』와 『左傳·昭十七』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⑧ 『史記·五帝本紀』: “黃帝 ... 官名皆以雲命爲雲師(황제 때에, ... 관직의 이름은 모두 雲을 사용하여 雲師라고 명명하였다)”

⑨ 『左傳·昭十七』: “昔者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상고 때에 황제씨 계열은 雲을 버리

로 삼았는데, 그 중책을 되는 자리를 雲師라 하였다)*6)

위의 『埤記』와 『左傳』의 기록을 통해 上古 때에 黃帝와 관련하여 雲師라는 관직을 가진 인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風伯, 雨師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치우·황제와 관련한 주요 관직들 중 風伯, 雨師, 雲師, 應龍 등이 있었고, 환웅이 거느린 부하들의 관직도 『三國遺事』에서 應龍을 제외한 風伯, 雨師, 雲師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예문 ⑨ 『左傳』에서 昔과 『三國遺事』의 昔은 모두 上古의 시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三國遺事』 「古朝鮮條」에서 나타나는 帝釋, 桓雄, 風伯, 雨師, 雲師는 모두 上古인 昔의 시대에 활약한 위인들이라고 『山海經』, 『埤記』, 『左傳』 등의 내용들과 비교를 통해 정리할 수 있겠다.

3. 古에 대한 시기 구분 및 古朝鮮의 古 의미 해석

古로서 시기를 표현한 문헌의 내용을 모아보면 고대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그 시대를 단순히 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시대의 표현으로 上古, 中古, 近古로 구분하여 그 시대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한문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제가 없으므로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간적 구분이나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인물이나 사건, 비교대상 물건 등, 기준으로 삼을 만한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문장에서 막연히 古라 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판단하는 데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여러 사건, 인물들이 혼재해 있을 경우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왕검조선을 古朝鮮이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정확히 시간적 범위가 정리되지 못한 것도 古에 대한 문자학적 정리가 되어있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 『三國遺事』 「古朝鮮條」를 해석한 내용을 보면, 인물관계에 있어서 그 활동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인해 서로 다른 시대의 인

6) 黃帝 때에 雲으로 벼슬이름을 삼았는데, 官職名稱은 모두 雲으로 命名하였다.

물들을 동시대의 사람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환인의 아들 환웅, 환웅의 아들 단군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한자로 기록된 문장에서 시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해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古 시기를 구분하여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古에 대해서 특정 시대를 기준으로 주요 사건과 문화 및 문명의 전개 과정, 민족의 이동 등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사실적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하며,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三國遺事』에서 왕김조선을 ‘古朝鮮’이라 한古의 시기에 대하여 관련 문헌의 내용들과 연계하여 상세히 분석, 고찰한다.

3.1 古의 기준 시점과 中古, 近古

古에 대하여 上古, 中古, 近古로 분류하는데, 『康熙字典·口部』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⁷⁾라고 하였고, 『句讀』에서도 “伏羲上古, 文王中古, 孔子下古”라고古를 분류하여, 伏羲시대는 上古시대이고, 周代 文王시대는 中古시대, 孔子가 활동하던 시기는 下古라고 하였다. 『義證』에서는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後古”⁸⁾라고古를 上古, 中古, 後古로 분류하여 下古대신에 後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⁹⁾ 이러한 시기 구분과는 달리 『禮記』에서는 “神農爲中古”¹⁰⁾라고 하여 神農시대를 伏羲시대와 같은 上古라고 하지 않고, 中古시대라고 하였다. 이는 『康熙字典』, 『句讀』, 『義證』 등을 포함한 문지학 관련 주요 문헌의 시대분류와는 달리 上古의 시대 안에서 中古를 구분한 것으로 그 시간 구간의 범위를 울려 잡은 경향이 있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古시대에 대한 구분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康熙字典』과 『句讀』, 『義證』의 구분과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張玉書, 陳廷敬等(1990), 99면.

8) 丁福保(1988), 948면.

9) 張玉書, 陳廷敬等(1990), 참조.

10) 『毛詩正義·卷十四 十四之一』, 참조

이러한 관점과 기준에서 문헌의 기록 및 역사 연구의 시기 분류를 참고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古에 대한 시기를 분류함이 타당하다. 주요 문헌에 나타나는 古에 대한 시대 해석의 기준은 주요 인물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인물 기준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인물이 활동한 시대의 주요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서적으로 伏羲과 神農, 蚩尤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 堯와 舜, 단군왕검, 夏禹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 文王과 무왕, 주공단, 강태공으로 대표되는 시대, 孔子와 환공이 살았던 춘추시대까지 古에 대하여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시간적 범위가 대략 3000년이 된다. 그러므로 古에 대한 시간적 해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문헌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하여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상하 문맥을 탐색하여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시제, 古가 지칭하는 시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1.1 本古

古에 대한 시기 구분은 전국시대와 그 이후 문헌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古에 대해 문자학적 시간사 ‘上·中·近’에 의한 구분인 上古·中古·近古, 계층적 분류 기준인 ‘上·中·下’에 의한 上古·中古·下古, 또는 시간의 전후 순서 분류 기준인 ‘上·中·後’에 의한 上古·中古·後古 등의 표현이 있다. 伏羲과 神農, 蚩尤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는 上古, 文王과 무왕, 주공단, 강태공으로 대표되는 시대는 中古, 孔子와 환공이 살았던 시대는 近古, 下古 또는 後古라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 구간의 범위를 계산하였을 때, 복희에서 문왕 전까지의 上古는 대략 2,300년이 되며, 문왕에서 공자까지는 대략 700여년이 된다. 여기서 上古와 中古 사이에 시대 구분을 위한 기준이 되는 古의 시작 시점의 의미로서의 기준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사의 시대 구분은 일반적으로 대사건 또는 전환점의 되는 주요 문명의 출현 시점, 새로운 통일 국가의 탄생 등과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上古와 中古 사이에는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대사들이 있는데, 단군조선, 하나라, 은나라와 같은 고대국가의 탄생, 대홍수에 의한 治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과 이를 중심으로 堯, 舜, 禹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대사건은 대전환의 시대가 되

기에 충분하며, 古의 시작이고 중심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본다. 이를 古 시대의 중심적인 시점이라고 보고, 기준점으로 구분하여 本古로 정의하였다. 즉 단군조선을 건국한 시기, 요순의 시대, 치수의 시대, 하나라 등장 시대의 시대, 한자 초기 자형 등장 시대를 本古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하면 ‘伏羲 神農, 蚩尤’로 대표되는 시기는 昔인 上古 시대로, 堯舜, 虞夏, 殷과 古朝鮮 건국 시기는 上古와 구분하여 本古의 시기로 분리하였다. 『三國遺事』의 ‘與高同時’가 의미하는 시대는 바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堯舜시대와 같은 古의 시대인 本古라고 구분할 수 있다.

『三國遺事』 「古朝鮮 條」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昔과 古로서 上古와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書經』을 포함한 주요 문헌의 堯와 舜, 夏禹, 은나라 등에 대한 기록에서는 그 시기를 古로서 나타내고 있다. 『書經』의 『堯典』과 『皋陶謨』에서 그 예를 보도록 한다.

⑩ 『書·堯典』：“曰若稽古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古 때의 堯帝를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체가 찬란하며,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다)”라 하여, 요임금 시기를 ‘古’시대로 말하고 있다.

⑪ 『虞書·皋陶謨』：“曰若稽古皋陶，曰‘允迪厥德，謨明弼諧(古 시기의 고요에 대하여 상고하건대, 고요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 덕을 실행하면 도모하는 것이 밝아지며 보필하는 자가 화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⑫ 『商書·盤庚中』：“曰：‘明聽朕言，無荒失朕命！嗚呼！古我前後，罔不惟民之承保(나의 말을 밝히 듣고 나의 명을 저버리지 마오. 오오! 古 때의 나의 선군들은 백성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시지 않음이 없으시다)’”

皋陶¹¹⁾는 순임금 시대의 인물로, 이 시기는 요순시대에 속하며 古의 기준이 되는 本古로 삼을 수 있다. 즉 위의 ⑩, ⑪과 같이 요임금 시대와 순임금 시대를 本古시대로 구분을 하면 上古와 中古 사이의 큰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가치를 부

11) 皋陶나 堯舜 등은 전설상의 인물로 정확한 생존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黃河流域에 부족 연맹과 이들을 이끄는 수장이 반드시 존재하였을 것이고, 『竹書紀年』이나 『韓非子·說疑』 등에서도 堯舜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本古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여할 수 있고, 구분에 세밀함과 시대의 구체적 묘사가 더하여져 역사적인 문헌 연구에 상당히 합리적인 시간의 범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근거로 『玉篇』에 보면古는 “久也, 始也”, 『正字通』에서는 “遠代也”라고 하여 처음 시작하던 때, 아주 먼 과거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여기서古는 “始也”라 하여 시작하는 시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上古, 中古, 近古 구분에 대한 다소 애매하고 막연한 표현의 예들을 문헌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辭源』에서는 “稍近於上古之時代謂之中古(거의上古의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바로 中古이다.)”라 하여上古와 가까운 시대를 中古라고 하였고, 『孝經注疏』에서는 “孔子爲下古。”(孔子는 下古 시대 사람이다.)이라고 하여 이에 따르면, 문자가 없던 까마득한 시대와 근접한 시대를 中古로 하고, 下古는 이미 문명이 발달하고, 사상의 꽃을 피우던 시대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기를 나누면,上古와 中古사이에 발생한 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기 관련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고, 이 시대 연구와 관련하여 세심함과 깊이를 더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唐代 書法家인 張懷瓘 『書斷·神品』은 “古文可爲上古, 大篆爲中古, 小篆爲下古。(古文은上古의文字이다. 大篆은 中古의文字이고, 小篆은 下古의文字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보아도, 시대 구분의 시간적 혼돈이 발생하고, 古의 시대적 묘사의 부정확해지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古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康熙字典·口部』의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를 따라서古를 구분한다고 하여도上古와 中古 사이에 또 하나의古를 기준으로 둬서 문헌 및 역사 연구의 선명한 시대 구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上古, 中古, 下古로 나눈古에 대하여 한 가지를 시기 기준점으로 추가하여 구분하자면,上古 - 本古 - 中古 - 下古로 세분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上古와 中古 사이에 本古를 두어 구분을 하면, 역사 문헌 연구에 좀 더 세밀함이 구비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本古는 초기古, 기준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本古라고 구분한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고,上帝, 堯와 舜, 단군왕검, 夏禹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라는 것은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당시의 중요 사건으로는 대홍수와 그로 인한治水사업이 있으며, 천하라는 단어가 보이고 구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

다. 堯, 舜과 夏禹 등은 치수라는 막대한 사업의 핵심 인물로 나타난다. 고조선과 하나라, 은나라와 같은 고대국가의 등장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¹²⁾

3.1.2 中古와 近古

中古는 보통 周 文王시대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 시대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살펴보겠다.

⑬ 『孟子·公孫丑下』 “古者棺槨無度。 中古棺七寸。 槨稱之”(옛날 관곽(棺槨)에 법도가 없었다. 中古에는 棺이 七寸이고, 槨을 棺木의 두께와 서로 맞게 맞추었다)

여기서 말하는 中古시대를 『句讀』 과 『義證』 에서는 文王시대라고 하였다. ⑬의 예문에서 “古者棺槨無度”라고 하여 棺槨制度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 中古 이전을 가리키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中古에 棺을 七寸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中古는 喪禮에 대하여 制度化한 周代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中古는 周 文王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 中古에 대하여 정의가 너무도 광범위하여 위로는 堯舜夏까지도 올라가고, 아래로는 戰國時代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 연구에서 古 시대에 대한 시기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⑭ 『周易·繫辭下』 “易之興也，其於中古乎，作易者，其有憂患乎(易經이 흥기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中古 시기 아니겠는가, 역경을 지은 사람은 아마도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을 것이지 않겠나?)”

12) 이 시기는 또한 한자의 초기 자형이라 할 수 있는 갑골문이 처음으로 나타나 사용된 시기의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사실상의 동아시아 고대 핵심사건과 인물들이 함께 언급되는 시대이다. 이 시기는 古의 구분에서 크게 보면 上古의 틀 속에 포함되어 표현되거나 단지 古라고 표현되기도 한 시기로 고조선 건국 초기, 堯舜 시대를 기록한 문헌에는 그 시기의 표현을 古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古의 시작은 바로 이때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시기에 대하여 上古나 中古처럼 시기를 구분한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본 연구는 그 시기의 중요도로 볼 때, 시기 구분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의 中古는 殷末 周代初의 文王, 武王시기를 말한다. 왜냐하면, 周文王이 역경을 풀이한 것은 監獄에 잡혀 있을 때로 그 당시에 卦辭를 지었고, 이는 걱정 근심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⑮ 『史記·秦始皇本紀』“朕聞太古有號毋諡，中古有號，死而以行為諡。如此，則子議父，臣議君也，甚無謂，朕弗取焉(내가 들었는데 태고에는 시호가 없었다고 한다. 中古에 이르러, 호칭이 있다가 죽은 후에 생전의 행적에 따라서 시호를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논하게 되고, 신하가 또 임금을 논하게 된다. 심히 할 바가 아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中古는 周代를 말한다. 왕이나 제후, 卿大夫, 大臣 등이 죽으면, 조정에서 생전의 행적이나 품행에 따라서 평가하고 의논하여 칭호를 사용하여 공적을 표창하는데 이것을 ‘諡法’이라고 한다. 이 諡法은 西周 중기 이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中古는 周代 이후를 말한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할 점은 上古는 전설의 시대로 자세히 논할 수 없는 오래된 시대를 말하고, 中古는 여기서 일정한 문물이 정비되는 시기를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上古와 中古의 시간적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상황 묘사에 있어 시대 구분의 편차가 심함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古 시대에 대한 시기 구분의 기준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近古는 下古 또는 後古는 라고도 하며, 古의 시대 구분 중에서 말기를 말한다.

⑯ 『孝經注疏』“孔子爲下古(孔子는 下古 시대 사람이다)”

『孝經注疏』의 “孔子爲下古”란 孔子가 생존한 시대가 바로 下古時代라는 것이다.

⑰ 『史記·秦始皇本紀』：“秦并海內，兼諸侯，南面稱帝，以養四海，天下之士斐然鄉風，若是者何也？曰：近古之無王者久矣。周室卑微，五霸既歿，令不行於天下(秦나라가 천하를 병합

하여 통일하고, 제후들을 겸병하고 남면하여 帝라고 부름으로써 온 천하를 돌보자, 천하의 선비들이 바람을 향하듯 앞을 다투어 찾아왔으니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답은 이렇다. 近古 이래로 왕이 된 자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주나라 왕실은 지위가 낮아지고 五霸는 이미 죽어 명령이 천하에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¹³⁾

『史記·秦始皇本紀』에서 말하는 近古 시대란 『孝經注疏』에서 말한 “孔子爲下古”의 下古를 좀 더 아래로 잡아서 춘추시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시대까지 포함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시 춘추 말기부터 더욱 혼란하여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혼돈의 전국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천하는 인정받는 왕이 따로 없는 것과 같이 대혼란의 시대를 겪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즉 여기서 下古와 近古는 통칭 춘추전국 시대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古 시기에 대한 정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들의 활동, 주요 사건을 비교하여 새롭게 제시하면, 『三國遺事』 「古朝鮮 條」의 古에 대한 시대를 구분할 때 더욱 이해하기가 쉽고, 『三國遺事』에서 등장하는 上古 시기의 대표 인물인 환인과 환웅, 本古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시대의 단군 왕검과 堯 등의 인물들을 재조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中古의 주 무왕 때의 단군, 다시 건국 이후 1908년 되는 시기의 단군까지도 그 시기를 분석할 수 있겠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은 인물은 단군왕검과 堯이다.

古에 대한 시대 구분과 전체 古의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伏羲과 神農, 蚩尤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 堯와 舜, 단군왕검, 夏禹 등으로 대표되는 古代시대, 文王과 무왕, 주공단, 강태공으로 대표되는 中古시대, 孔子가 살았던 近古 시대까지 古에 대한 시간적 범위가 대략 3000년이 된다. 이를 배경으로 다음 절에서는 古 시기에 대한 고조선의 古를 비교, 분석해 보겠다.

13) 『史記·秦始皇本紀』에 나오는 近古는 공자의 시대를 下古로 하였던 것보다 기간을 하대로 내려 잡고 있다.

3.2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古 시기 해석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을 보면, 古代 의미의 한자로 上古의 昔과 古代의 古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고조선의 건국시기와 관련하여 古의 堯와 같은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⑮ “魏書¹⁴⁾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壇君王儉이 阿斯達에 도읍을 정한 때가 “與高同時”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高는 堯시대이며, 단군왕검과 동시대의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의 高가 堯를 의미한다는 것은 몇 가지 다음의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⑯ 『說文·堯部』：“堯, 高也。从堯在兀上, 高遠也。𡗗, 古文堯(堯는 高이다. 堯이 兀위에 있는 의미를 따른다. 높고 멀다는 의미이다. 𡗗는 古文으로 ‘堯’字를 말한다)”

⑰ 『說文解字注』：“(堯)高也。堯本謂高。陶唐氏以爲號。白虎通曰：堯猶嶢嶢。嶢嶢, 至高之兒。按焦嶢, 山高兒。見山部。堯之言至高也。舜, 山海經作俊。俊之言至大也。皆生時臣民所僞之號, 非諡也。(堯는 高를 말한다. 堯는 본래 高라고 하였다. 陶唐氏의 號이다. 白虎通에 이르기를 堯는 높고 높다는 의미와 같다. 嶢嶢는 지극히 높은 모양이다. 焦嶢는 嶢嶢와 같은 의미로 이에 따르면, 역시 산이 높은 모양을 말한다. 山부에 보면, 堯는 지극히 높은 것을 말한다. 舜은 山海經에서 ‘俊’라고 하였다. 俊은 지극히 큰 것을 말한다. 모두 생시에 백성과 신하들이 부르던 칭호이고 시호는 아니다)”

⑱ 『釋名·釋山』：“山多小石曰礧。礧, 堯也, 每石堯堯獨處而出見也(산에 작은 돌이 많은 것을 礧라고 한다. 礧는 堯를 말하며, 모든 돌들이 높고 높아 홀로 있어서 보이는 것을 말한다)”

⑳ 『書·堯典』：“日若稽古帝堯, 日放勳。(옛 堯帝를 상고하건데 공이 크시니, 放勳이라

14) 여기서 가리키는 『魏書』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잠시 유보하기로 한다.

고도 하였다)”

『說文·堯部』에서 보면, “堯, 高也。”라고 하여 원래 堯은 높다는 의미이고, 堯은 흙 위에 흙이 있는 모양으로 높은 곳을 말한다. 『說文解字注』에서는 堯를 본래 高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堯를 陶唐氏라 한다고 하였다. 『書·堯典』에서는 “曰若稽古帝堯, 曰放勳。”(옛 堯帝를 상고하건데 공이 크시니, 放勳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하여 ‘공이 크다’라고 한 것이 나중에 호칭으로 되어 放勳이라고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 해석에 따라 『書經』의 내용 속에서 쓰인 古에 대하여,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書經』에서는 古를 모두 29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堯, 舜, 禹, 皋陶와 殷周시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물들과 국가에 대한 『書經』 편의 기록을 통해 볼 때 堯, 舜, 禹, 皋陶와 殷의 시대는 古로 표현되는 시기 구분의 기준 시대로 볼 수 있다. 즉 伏羲는 上古로, 古라고 표현된 堯舜, 虞夏, 殷은 本古로, 周는 中古로 보아, 주로 堯舜시대는 本古로 구분하고, 이후 周시대부터는 中古로 구분하며, 堯舜 이전은 上古인 셈이다. 이러한 古의 시대 구분에 대한 시도는 특정 시대에 대한 인물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 『書經』에서 해당 시대의 통치, 사회적 상황,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사상이나 문물의 기원과 이것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¹⁵⁾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書經』에서 말하는 堯舜 시대는 本古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三國遺事』에 보이는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지난 2,000년 전에 단군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의 “與高同時”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시대가 堯舜시대와 같은 ‘本古’의 시대가 된다.

『三國遺事』 「古朝鮮 條」 기록에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② 周虎王即位己卯(周나라 虎王이 즉위한 己卯년)

15) 李鏡淑·文致雄(2020), 127면.

여기서 말하는 周虎王은 周武王을 말하는 것으로, 이 周武王인 姬發은 中古 시기 西周王朝의 개국 군주로 文王의 次子이다. 그의 형인 伯邑考가 商紂王에게 학살되었기 때문에 姬發이 繼位를 한 것이다. ‘武’는 사후의 諡號이고 世稱하여 周武王이라고 한다.¹⁶⁾

『三國遺事』에는 下古 시대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⑭ 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 (단군은 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니 壽命을 할 때부터 1908년이 된다)

위의 내용 중에 “壽一千九百八歲”이라고 한 것은 나라를 건립하고 1908년이 지난 시점을 의미하며, 단군 조선이 건국된 本古 시대인 BC 2333에서 1908년이 지난 때인 BC 425년이다. 이 시기는 下古 또는 近古의 시기이며, 공자의 사망연대가 BC 475년이므로 그보다 50년의 지난 BC 425년에도 왕검 조선이 존속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내용은 上古의 昔, 古의 초기, 中古 시기, 近古 시기까지의 古의 전 범위에 걸친 내용이며, 古의 시기가 끝나고 그 이후 한나라 건국시기에 건국된 위만조선 조는 古朝鮮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위만조선 시기는 古의 시대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시대부터 秦漢代의 문헌 기록에서도 당시를 古라 하지 않고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대별 특징과 『三國遺事』 「古朝鮮條」에 나오는 시대와 비교하여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시대에 대하여 규명한 내용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겠다.

上古시대에 해당하는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기록을 보면, “古記云 昔有桓國(謂帝釋也) 庶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昔有桓國”은 上古 시대를 표현하였다. 또한 上古시대와 관련된 내용은 “昔有桓國”이라는 기록 이외, “將風伯 雨師 雲師”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6) 周虎王은 중국 역사책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三國遺事』 기록에 의거하여 주무왕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 확정한 것이다. 즉 『三國遺事』에서는 高麗惠宗인 “王武”의 이름을 避諱하기 위하여 “武”를 “虎”로 한 것이다.

기존의 上古, 中古, 下古로 시대를 구분하였던 古에 本古를 시대 구분의 한 기간으로 놓을 수 있음을 위에서 설명하였다. 즉 伏羲 등 삼황으로 대표되는 부족의 시대는 上古시대로 볼 수 있고, 『書經』에서 말하는 古 시대인 堯舜時代를 비롯한 虞夏, 殷는 따로 上古와 구분하여 本古의 시기로 분리하여 볼 수 있으므로, 『三國遺事』의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에서 말하는 “與高同時”이 의미하는 시대가 바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시대로 堯舜시대와 같은 古의 시대이며, 바로 이를 本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上古와 中古사이의 本古시대를 따로 분류하여 시대 구분의 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겠다.

중古는 보통 周 文王시대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三國遺事』의 “周虎王即位己卯(周나라 虎王이 즉위한 己卯년)”에 보이는 周 虎王은 周 武王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시기는 『康熙字典』 “伏羲爲上古, 文王爲中古, 孔子爲下古.” 등에서도 말하였듯이 바로 中古시기이다.

下古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면, 『孝經注疏』에서 “孔子爲下古。”(孔子는 下古 시대 사람이다.)라고 하여, 여기의 『孝經注疏』의 “孔子爲下古”란 孔子가 생존한 시대가 바로 下古時代라는 것이다. 『史記·秦始皇本紀』의 “秦并海內, 兼諸侯, 南面稱帝, 以養四海, 天下之士斐然鄉風, 若是者何也? 曰:近古之無王者久矣。周室卑微, 五霸既歿, 令不行於天下。(秦나라가 천하를 병합하여 통일하고, 제후들을 겸병하고 남면하여 帝라고 부름으로써 온 천하를 돌보자, 천하의 선비들이 바람을 향하듯 앞을 다투어 찾아왔으니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답은 이렇다. 近古 이래로 왕이 된 자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주나라 왕실은 지위가 낮아지고 五霸는 이미 죽어 명령이 천하에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에서 말하는 “近古”시대란 『孝經注疏』에서 말한 “孔子爲下古”의 下古를 좀 더 아래로 잡아서 춘추시대뿐만 아니라, 전국시대까지 포함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시 춘추 말기부터 더욱 혼란하여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혼돈의 전국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천하는 인정받는 왕이 따로 없는 것과 같이 대혼란의 시대를 겪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즉 여기서 下古와 近古는 같은 의미이며 통칭 춘추전국 시대로 볼 수 있다.

『三國遺事』 「古朝鮮 條」에서 등장하는 “壇君 ... 山神壽一千九百八歲”의 내용 중에서 “壽一千九百八歲”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나라를 건립하고 1908년 세월이 지

난 시점까지의 존속을 말하는 것이다. 단군 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古 시대(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時)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볼 때, 요순시대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夏 이전의 시대로 고조선이 약 BC 2333에 건국되었고, 이때부터 1908년이 지났으면, BC 425년이다. 이 시기는 춘추 시대(기원전 약 770년부터 기원전 476년까지라고 보기도 한다. 역시 구체적인 숫자는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기원전 약 770년부터 기원전 약 403년(周의 威烈王이 三晉을 진의 조, 한, 위를 제후로 봉한 때) 까지로 보고, 기원전 약 403년부터를 전국시대 시작으로 보아 기원전 약 221年(秦始皇이 二十六年)까지로 본다. 이 춘추 전국 시대 近古의 시기로, 공자의 사망연대가 BC 475년이므로 고조선이 약 BC 2333에 건국, 1908년이 지난, BC 425년은 그보다 50년의 지난 시대에도 왕검 조선이 존속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4. 結論

『三國遺事』 「古朝鮮 條」 기록에 나타나는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활동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 결과인 「古와 昔의 時代 解釋과 區分」, 「『說文解字』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古의 時代區分 해석」, 「三經에 나타난 古의 時期 解釋」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古朝鮮의 古에 대한 의미와 그 기간을 추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국 고대 관련 문헌 기록과 고조선조의 내용을 비교해 나가면서 고대 인물들의 활동 시기와 활동내용, 당시의 사건들의 구체적인 시기, 순서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하였다. 『三國遺事』 「古朝鮮 條」에서의 인물들은 크게 환인, 환웅, 단군왕검과 관련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후에 주 무왕 때의 단군, 다시 건국 이후 1908년 되는 시기의 단군이 나타난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을 인물은 단군왕검이다. 기록에서 단군왕검의 시대는 堯와 동시대라 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古에 대한 시대 구분에서 堯舜時代를 기준 古인 本古시대로 보면, 단군왕검의 시대는 本古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단군왕검과 요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대를 上古라 하였으며, 달리 昔이라고도 할 수 있다. 『古朝鮮 條』에서 “昔有桓國”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上古 때의 위인들

로는 帝釋, 桓雄, 雨師, 雲師, 風伯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조선 기록에 이어서 나타나는 한나라 건국시기의 위만조선은 고의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고, 『三國遺事』 「古朝鮮 條」 기록을 근거로 나타나는 대표인물인 요, 주 무왕과 무왕 때의 기자, 이후 건국부터의 1908년이 되는 시기에 대하여 本古 - 中古 - 近古(下古, 後古) 등의 시기 구분을 적용하여 인물들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도 있게 된다.

동아시아 전체 문헌을 통틀어 단군왕검 시대에 문헌에 나타나는 나라 이름과 건국자, 도읍의 등장은 단군왕검의 조선과 아사달이 유일하다. 동시대 인물로 문헌의 기록에 나타나는 堯나 舜에 대해서도 그들이 세웠다는 나라 이름은 『史記』, 『書經』, 『竹書』 또는 『孟子』 등을 포함한 고대의 기록을 담은 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발견된 출토자료인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출토자료에서는 堯나 舜이 제왕적 위치의 존재로 나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의 주요 시기와 주요 인물, 사건, 또는 그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해석에 대한 이해를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程俊英(2004), 十三經譯注, 詩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陰法魯, 許樹安(1996), 『中國古代文化史1,2,3』, 北京大學出版社.
 段玉裁(199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張玉書, 陳廷敬等(1990),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張舜徽(2009),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出版.
 丁福保(1988),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朱駿聲(1983),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湯可敬(2018), 『說文解字今釋』(東漢許慎者: 湯可敬「撰」, 上海古籍出版社.
 許慎撰, 徐鉉等校定(1992), 『說文解字』, 中華書局.
 商務印書館編輯部等(1983), 『辭源』(套裝全2冊), 商務印書館.
 張傳璽(1999), 『簡明中國古代史』, 北京大學出版社.
 李鏡淑·文致雄(2019), 『古 '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분에 한 考察』, 『漢文古典研究』 第30輯.

한국한문고전학회, 339~365면.

李鏡淑·文致雄(2020), 「古의 時代區分考察 —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의미 해석」, 『중국어논총』, 第67輯, 한국중국어문화학회, 43~60면.

李鏡淑·文致雄(2020), 「三經에 나타난 '古'의 時期 解釋」, 『漢字漢文教育』, 第49輯,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115~134면.

<http://ctext.org/guanzi/shu-yan/zh>: 經典(Jingdian)(2021년 6월1일 접속)

<http://hanji.sinica.edu.tw/>(2021년 6월1일 접속)

<http://www.gushiwen.org/GuShiWen>(2021년 6월1일 접속)

<http://www.guoxue123.com/>(2021년 6월1일 접속)

<http://www.tcmdoc.cn/>(2021년 6월1일 접속)

<https://www.donglishuzhai.net/>(2021년 6월1일 접속)

The meaning of ‘old(古)’ and its time period in the records of Gojoseon article(古朝鮮) on Samgukyusa(三國遺事)

Lee, KeoungSuk·Moon, Chiung*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old (古) means as the pre-ancient (上古) and ancient era (古代) based on temporal meanings, which is the important historical meanings in order to understand ancient era. The study approach, firstly, subdivided the ancient era and its specific perio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major literature containing ancient contents. Based on the contents of this ancient temporal classification, the periods appearing in the records of the Samgukyusa(三國遺事) were compared with major literature, and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such as Pre-ancient, Primary ancient, Middle ancient, and Late ancient periods.

The Phrase 昔有桓國 expressed in Gojoseon article of Samgukyusa, which means Hwan dynasty (桓國) existed in Pre-ancient era. We can also found the official titles related to this era including Hwanung (桓雄), Usa (雨師), Unsa (雲師) and Pungbaek (風伯) in Samgukyusa. The era of Dangun Wanggeom, Yao and Shun (堯舜), Yu Xin (虞夏), and Yin (殷) separated from Pre-ancient and there era can be classified into Primary ancient era. There is a record in the Samgukyusa that Dangun Wanggeom founded the country called Joseon, and that there were Yao as a person at that time. The primary ancient is the beginning of ancient and the early of ancient era.

* Lecturer, Kongju National University / jing20000219@hanmail.net
R&D Center Director, Hongik Foundation / cumoon@hanmail.net

The Middle ancient is generally classified by the time of beginning the king Wen (文王) reign of Zhou dynasty about BC 1122. This time is referred to the during the reign of King Ho (虎) of Zhou dynasty (周虎王即位己卯) described in Samgukyusa. The record corresponding to the Late ancient is the 1908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based on the BC 2333 in the contents of 壇君 ... 壽一千九百八歲. Therefore It's time can be seen that BC 425 years. It is 1908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Dangun Joseon at BC 2333 is BC 425. This time is 50 years later than BC 475 when Confucius died. This means that there were still royal Dangun Joseon during this period.

Keywords: Ancient era, Gojoseon, Pre-ancient, Primary ancient, Middle ancient, Late ancient